

보도시점 2023. 8. 29.(화) 12:00 배포 2023. 8. 29.(화) 9:00

강원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 분석

- 강원도의 인구 '12년부터 '22년까지 총 31,922명 순유입됨
순유입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 순유입의 81.8% 차지
- '22년 순유입의 주된 연령대는 40~60대로 전체 순유입의 73.4% 차지
 - 순유입 사유 1위는 주택, 관련 요인으로는 주택보급률(수도권의 13.2%p)은 높고
공시지가(수도권의 2.5%)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2년 연령대별 순유출 1위는 20대로 전체 순유출의 96.4% 차지
 - 순유출 사유 1위는 직업, 관련 요인으로는 20대 고용률(수도권의 9.6%p)과
근로소득(수도권의 64.9%) 등이 낮기 때문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강원지방통계지청(지청장 유영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하여 강원지역의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도 간 인구이동은 전입자 수(75,874명)가 전출자 수(68,380명)보다 7,494명 많은 순유입 상태이다. '12년부터 '22년까지 총 31,922명이 타 시도에서 순유입되었다.

'22년 강원도의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4,870명), 서울(1,010명), 인천(840명) 순이며, 순유출이 발생한 시도는 대전(286명), 충남(278명), 세종(156명) 순이다.

‘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령대별 순이동을 보면, 10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있었으며, 그 중 20대는 수도권*으로 순유출 3,013명이 발생하였고, 40~60대에서 7,160명이 수도권에서 순유입되었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0~60대의 순유입 사유는 ‘22년 기준 주택, 자연환경, 직업 순으로, 이중 주택은 ‘12년 대비 526.4% 증가하였고,
20대의 순유출 사유는 ‘22년 기준 직업, 기타, 주거환경 순으로, 이중 직업은 ‘12년 대비 59.2% 증가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 보급률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수도권의 직장 및 주택 관련 요인을 비교하였다.

강원 인구의 타 시도 유입요인을 관련 통계로 파악하면, 21년 기준 강원 주택보급률(110.0%)은 수도권(96.8%)보다 13.2%p 높고,
‘22년 기준 강원 개별공시지가는 9,780원으로 수도권보다 386,219원 낮았으며, 수도권 대비 2.5%로 나타났다.

강원 인구의 타 시도 유출요인을 관련 통계로 파악하면, 강원 본사 종사자 비중(7.7%)은 수도권(15.9%)보다 8.2%p 낮았고,
고용지표를 비교한 결과, ‘22년 기준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수도권 대비 9%p 이상 낮았지만, 실업률은 1.3%p 높았다.

* 경제활동참가율 :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21년 강원 근로소득은 3,080만원으로 수도권보다 약 1,669만 원 낮았으며, 수도권의 64.9% 수준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강원도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 분석 1부.

담당 부서	강원지방통계지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옥경 (033-258-3740)
		담당자	팀 장	주은정 (033-258-3744)

『강원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 분석』

2023. 8.



강원지방통계지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를 분석한 자료임

□ 국내인구이동통계 개요

○ 대상기간: 해당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분석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 주요개념 및 용어 정의

- 시도 간 이동: 시도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전입: 시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시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순이동: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전국의 순이동은 0)
 - 순유입(전입초과):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경우
 - 순유출(전출초과):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경우
- 이동률(Migration Rate):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수

* 전년말(당해 연초) 주민등록인구와 당해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일 러 두 기

□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자료명	기준시점	분석 항목
국내인구이동통계	'12년~'22년	국내 인구이동 현황 및 이동사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1.1.1.~ '21.12.31.	근로소득(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경제활동인구조사	'12.12.31., '22.12.3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사회조사	'21.5.12.	직업선택요인
전국사업체조사	'21.12.31.	전국 사업체 및 본사·본점 현황
국토교통부	'21.12.31.	주택 보급률
한국부동산원	'22.12.31.	주택 공시지가

□ 유의사항

- 본자료는 '국내인구이동통계'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출생, 사망통계 제외)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이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구이동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①직업, ②가족, ③주택, ④교육, ⑤주거환경, ⑥자연환경, ⑦기타의 7가지로 구분
- 인구이동 사유는 세대의 주된 이동 사유를 모든 세대원에 적용하였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

□ 본 자료는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w>)에 게시 예정임

목 차

I. 강원 인구이동 현황

1. 시도 간 이동 변화	1
2. 연령별 이동	2
3. 성·연령별 이동	3
가. 40~60대 순유입 현황	4
나. 20대 순유출 현황	5
4. 시도별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	5
5. 시도 및 연령별 주요 순유입지 및 순유출지	6
6. 권역 및 연령별 순이동	6

II. 강원 인구이동 사유 분석

1. 전입 및 전출 사유	7
2. 사유별 순이동자수	7
3. 사유 및 연령대별 순이동자수	8

III. 강원 인구 순이동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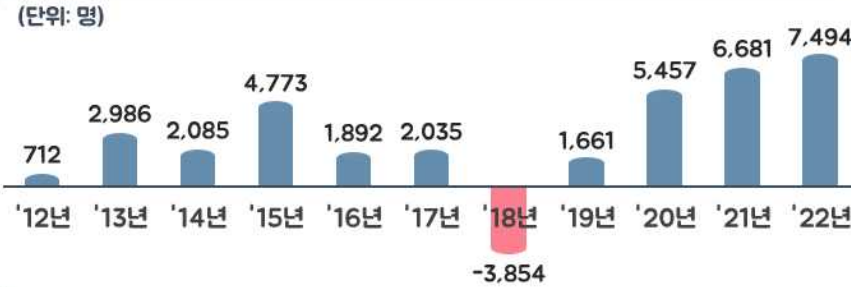
1. 강원 인구 순유입요인	9
가. 주택보급률 현황	9
나. 개별공시지가 현황	9
2. 강원 인구 순유출요인	10
가.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10
나. 고용지표	10
다. 직업선택요인 및 근로소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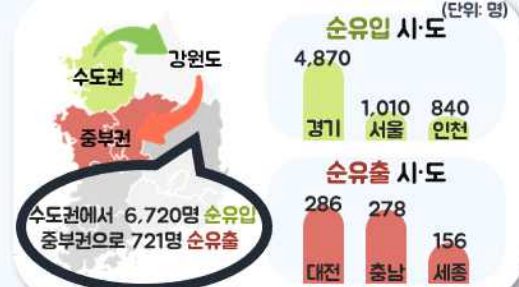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 분석

인구이동 현황

01 연도별 순이동인구('12~'22)



02 권역별 순이동(2022)



03 연령별 순이동(2022)



04 연령별 순이동 사유(2022)

(단위: 명)	주된 순유출 사유	순이동	주된 순유입 사유	순이동
10대	직업	-127	주택	123
20대	직업	-2,328	가족	183
30대	기타	-139	가족	729
40대	기타	-164	주택	558
50대	기타	-251	주택	1,086
60대	기타	-246	주택	1,325

순유입 요인

05 주택보급률('12, '21)



06 개별공시지가(2022)



순유출 요인

07 20대 고용률('12, '22)



08 근로소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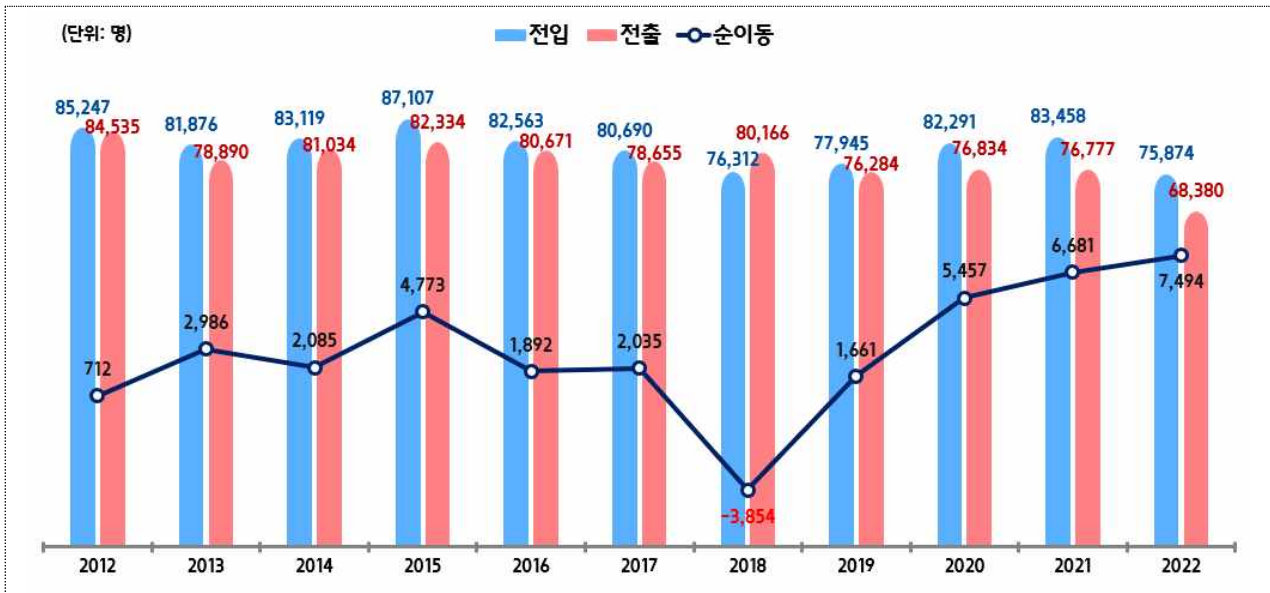


I. 강원 인구가동 현황

1. 시도 간 이동 변화

- '22년 시·도간 전입자 수(75,874명)는 '12년(85,247명) 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시·도간 전출자 수(68,380명)는 '12년(84,535명) 대비 19.1% 감소
- '22년 순이동*자 수(7,494명)는 '12년(712명) 대비 952.5% 증가
 - '12년부터 '22년까지 11년간 순유입된 인구는 총 31,922명으로 집계
- * 순이동 = 전입자수 - 전출자수

<그림 1> 시도 간 전입, 전출 및 순이동 추이(2012~2022)



[표 1] 강원도 인구가동 변화

(단위: 명, %)

년 도	총전입	시도간전입	총전출	시도간전출	순이동
2012	225,896	85,247	225,184	84,535	712
2013	217,917	81,876	214,931	78,890	2,986
2014	228,369	83,119	226,284	81,034	2,085
2015	227,125	87,107	222,352	82,334	4,773
2016	223,484	82,563	221,592	80,671	1,892
2017	211,653	80,690	209,618	78,655	2,035
2018	216,398	76,312	220,252	80,166	-3,854
2019	217,626	77,945	215,965	76,284	1,661
2020	223,354	82,291	217,897	76,834	5,457
2021	217,103	83,458	210,422	76,777	6,681
2022	194,864	75,874	187,370	68,380	7,494
증감률 ¹⁾	-13.7	-11.0	-16.8	-19.1	9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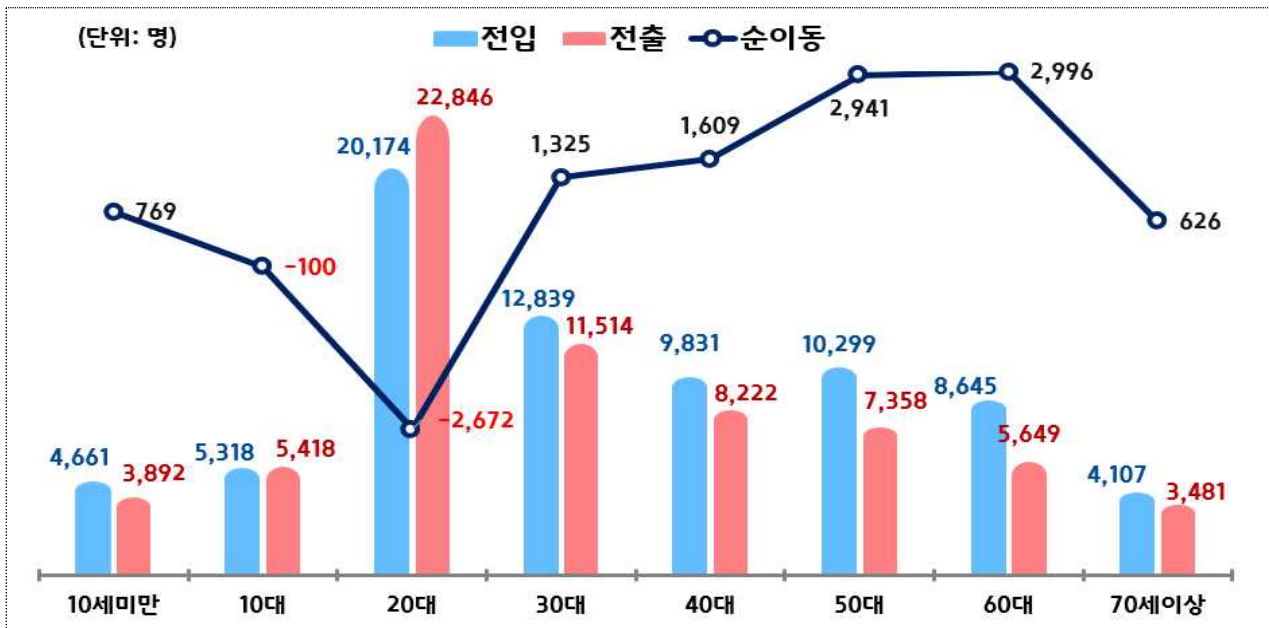
주1) '12-'22년 증감률

2. 연령별 이동

□ '22년 강원도의 연령별 인구 순이동은 10대, 20대에서 유출되고, 그 외 연령대에서 유입되어 전체로는 순유입(7,494명)임

- 순유입자 수는 60대(2,941명), 50대(2,941명), 40대(1,609명)순으로 나타남
- '12년 대비 순유입자는 60대(1,986명), 30대(1,116명), 50대(1,082명)순으로 증가
- 순유출자 수는 20대(2,672명), 10대(100명)에서 나타남
- '12년 대비 20대 순유출자는 1,990명 감소

<그림 2> '22년 기준 연령별 이동 현황



[표 2] 연령별 이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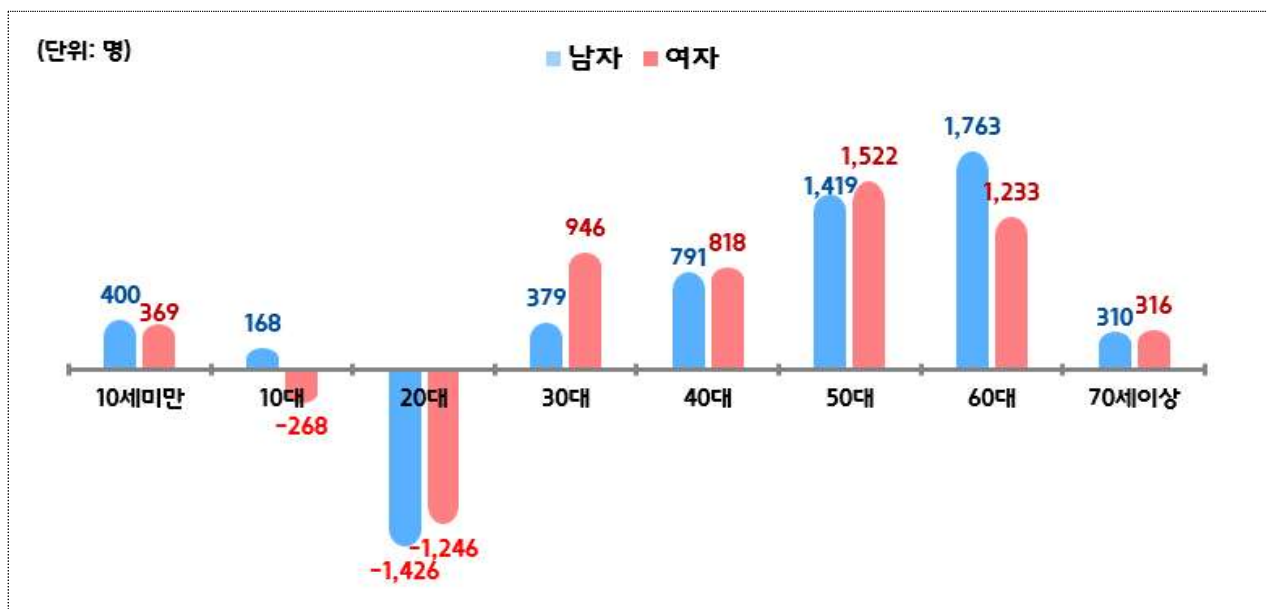
구 분	2012			2022			차이('22-'12)		
	(사.요.)전입	(사.요.)전출	순이동	(사.요.)전입	(사.요.)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총 계	85,247	84,535	712	75,874	68,380	7,494	-9,373	-16,155	6,782
10세 미만	8,287	7,926	361	4,661	3,892	769	-3,626	-4,034	408
10대	9,381	8,630	751	5,318	5,418	-100	-4,063	-3,212	-851
20대	19,588	24,250	-4,662	20,174	22,846	-2,672	586	-1,404	1,990
30대	17,075	16,866	209	12,839	11,514	1,325	-4,236	-5,352	1,116
40대	11,671	10,835	836	9,831	8,222	1,609	-1,840	-2,613	773
50대	10,087	8,228	1,859	10,299	7,358	2,941	212	-870	1,082
60대	4,983	3,973	1,010	8,645	5,649	2,996	3,662	1,676	1,986
70세 이상	4,175	3,827	348	4,107	3,481	626	-68	-346	278

3. 성·연령별 인구이동

□ '22년 강원도의 성별 인구 순이동은 남자(3,804명)가 여자(3,69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0세미만, 20대, 60대 남자가 여자보다 순이동이 많음
- 10대 남자는 순유입(168명) 이지만 10대 여자는 순유출(-268명)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남자(-1,426명)가 여자(-1,246명)보다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연령대는 남녀 모두 순유입이 많음

<그림 3> '22년 성·연령별 순이동 현황



[표 3] '22년 기준 성·연령별 이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사·도·군)전입	(사·도·군)전출	순이동	(사·도·군)전입	(사·도·군)전출	순이동	(사·도·군)전입	(사·도·군)전출	순이동
총 계	75,874	68,380	7,494	40,643	36,839	3,804	35,231	31,541	3,690
10세 미만	4,661	3,892	769	2,425	2,025	400	2,236	1,867	369
10대	5,318	5,418	-100	2,890	2,722	168	2,428	2,696	-268
20대	20,174	22,846	-2,672	11,456	12,882	-1,426	8,718	9,964	-1,246
30대	12,839	11,514	1,325	6,933	6,554	379	5,906	4,960	946
40대	9,831	8,222	1,609	5,326	4,535	791	4,505	3,687	818
50대	10,299	7,358	2,941	5,423	4,004	1,419	4,876	3,354	1,522
60대	8,645	5,649	2,996	4,531	2,768	1,763	4,114	2,881	1,233
70세 이상	4,107	3,481	626	1,659	1,349	310	2,448	2,132	316

가. 40~60대 순유입 현황

'22년 순유입이 가장 큰 40~60대를 성별 및 연령으로 세분하여 분석

- '22년 40대의 순유입자 수는 1,609명, 순유입률(40대 100명당 순유입자수)은 0.7%
 - 순유입률을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0.3%p, 여자 0.6%p 증가
 - 연령을 세분하면 40~44세의 순유입률(0.8%)이 45~49세(0.7%)보다 0.1%p 큼
- '22년 50대의 순유입자 수는 2,941명, 순유입률(50대 100명당 순유입자수)은 1.1%
 - 순유입률을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0.3%p, 여자 0.5%p 증가
 - 연령을 세분하면 50~54세의 순유입률(0.9%)이 55~59세(1.3%)보다 0.4%p 작음
- '22년 60대의 순유입자 수는 2,996명, 순유입률(60대 100명당 순유입자수)은 1.1%
 - 순유입률을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0.4%p, 여자 0.4%p 동일
 - 연령을 세분하면 60~64세의 순유입률(1.3%)이 65~69세(0.9%)보다 0.4%p 큼

[표 4] 40대~60대 순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명, %, %p)

구 분	2012			2022			차이('22-'12)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40대	836 (0.3)	549 (0.4)	287 (0.2)	1,609 (0.7)	791 (0.7)	818 (0.8)	773 (0.4)	242 (0.3)	531 (0.6)
40~44세	309 (0.2)	215 (0.3)	94 (0.2)	817 (0.8)	409 (0.8)	408 (0.8)	508 (0.6)	194 (0.5)	314 (0.6)
45~49세	527 (0.4)	334 (0.5)	193 0.3	792 0.7	382 0.7	410 0.7	265 (0.3)	48 (0.2)	217 (0.4)
50대	1,859 (0.7)	990 (0.8)	869 (0.7)	2,941 (1.1)	1,419 (1.1)	1,522 (1.2)	1,082 (0.3)	429 (0.3)	653 (0.5)
50~54세	918 (0.7)	465 (0.7)	453 (0.7)	1,220 (0.9)	575 (0.8)	645 (1.0)	302 (0.2)	110 (0.1)	192 (0.3)
55~59세	941 (0.9)	525 (0.9)	416 (0.8)	1,721 (1.3)	844 (1.3)	877 (1.4)	780 (0.4)	319 (0.4)	461 (0.6)
60대	1,010 (0.7)	625 (0.9)	385 (0.5)	2,996 (1.1)	1,763 (1.3)	1,233 (0.9)	1,986 (0.4)	1,138 (0.4)	848 (0.4)
60~64세	574 (0.8)	343 (1.0)	231 (0.6)	1,950 (1.3)	1,142 (1.5)	808 (1.1)	1,376 (0.5)	799 (0.5)	577 (0.5)
65~69세	436 (0.6)	282 (0.8)	154 (0.4)	1,046 (0.9)	621 (1.1)	425 (0.7)	610 (0.3)	339 (0.3)	271 (0.3)

나. 20대 순유출 현황

'22년 순유출이 가장 큰 20대를 성별 및 연령으로 세분하여 분석

- '22년 20대의 순유출자 수는 2,672명, 순유출률(20대 100명당 순유출자수)은 1.6%
 - 남자의 순유출(1,426명)이 여자(1,246명)보다 180명 많음
 - 남자의 순유출률(1.5%)은 여자(1.7%)보다 0.2%p 낮음
 - 순유출률을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0.5%p, 여자 1.5%p 감소
- 연령을 세분하면 20~24세의 순유출률(2.5%)이 25~29세(0.6%)보다 1.9%p 큼
 - 20~24세 남자의 순유출률(1.0%)은 여자(4.3%)보다 3.3%p 낮으며, '12년 대비 남자 1.2%p, 여자 0.4%p 감소

[표 5] 20대 순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명, %, %p)

구 분	2012			2022			차이('22-'12)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대	-4,662 (-2.6)	-2,050 (-2.0)	-2,612 (-3.2)	-2,672 (-1.6)	-1,426 (-1.5)	-1,246 (-1.7)	1,990 (1.0)	624 (0.5)	1,366 (1.5)
20~24세	-1,549 (-1.6)	110 (0.2)	-1,659 (-3.9)	-2,125 (-2.5)	-482 (-1.0)	-1,643 (-4.3)	-576 (0.9)	-592 (-1.2)	16 (-0.4)
25~29세	-3,113 (-3.6)	-2,160 (-4.6)	-953 (-2.5)	-547 (-0.6)	-944 (-1.9)	397 (1.1)	2,566 (3.0)	1,216 (2.7)	1,350 (1.4)

4. 시도별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

- (전입지) '22년 강원으로의 전입은 경기(38.6%), 서울(24.2%), 인천(6.4%) 순
 - (순유입지) 순유입은 경기(4,870명), 서울(1,010명), 인천(840명) 순
- (전출지) '22년 강원에서 전출은 경기(35.7%), 서울(25.4%), 충북(5.9%) 순
 - (순유출지) 대전(286명), 충남(278명), 세종(156명) 순

[표 6] '22년 기준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

(단위: 명, %)

구 분	(시·도간)전입	순유입지 ¹⁾	(시·도간)전출	순유출지 ²⁾
총이동자수	75,874(100.0)	8,216(100.0)	68,380(100.0)	-722(100.0)
1위	경기 29,286(38.6)	경기 4,870(59.3)	경기 24,416(35.7)	대전 -286(39.6)
2위	서울 18,374(24.2)	서울 1,010(12.3)	서울 17,364(25.4)	충남 -278(38.5)
3위	인천 4,843(6.4)	인천 840(10.2)	충북 4,018(5.9)	세종 -156(21.6)

주1) 지역별 순이동 중 유입(+인 지역

2) 지역별 순이동 중 유출(-인 지역

5. 시도 및 연령별 주요 순유입지 및 순유출지

- (10세미만) 순유입지는 경기(385명), 서울(211명), 충북(96명) 순
- (10대) 순유입지는 경기(253명), 인천(49명), 경남(48명) 순,
순유출지는 서울(257명), 대전(71명), 대구(58명) 순
- (20대) 순유입지는 경남(248명), 부산(141명), 경북(113명) 순,
순유출지는 서울(2,577명), 경기(392명), 대전(170명) 순
- (30대) 순유입지는 서울(518명), 경기(493명), 인천(106명) 순,
순유출지는 충남(104명), 세종(74명), 대전(34명) 순
- (40대) 순유입지는 경기(864명), 서울(609명), 인천(160명) 순
- (50대) 순유입지는 경기(1,456명), 서울(994명), 인천(245명) 순
- (60대) 순유입지는 경기(1,548명), 서울(995명), 인천(289명) 순

[표 7] '22년 기준 시도·연령별 주요 순유입지 및 순유출지

(단위: 명)

구 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순유입지	1위 경기(385)	경기(253)	경남(248)	서울(518)	경기(864)	경기(1,456)	경기(1,548)	서울(417)
	2위 서울(211)	인천(49)	부산(141)	경기(493)	서울(609)	서울(994)	서울(995)	경기(263)
	3위 충북(96)	경남(48)	경북(113)	인천(106)	인천(160)	인천(245)	인천(289)	전북(20)
순유출지	1위 세종(-40)	서울(-257)	서울(-2,577)	충남(-104)	전북(-44)	전남(-33)	전남(-21)	부산(-29)
	2위 대전(-32)	대전(-71)	경기(-392)	세종(-74)	대전(-38)	충남(-14)	충북(-11)	충북(-22)
	3위 충남(-19)	대구(-58)	대전(-170)	대전(-34)	경북(-31)	-	충남(-7)	충남(-18)

6. 권역 및 연령별 순이동

- 순유입은 수도권(6,720명), 영남권(1,256명), 호남권(239명) 순, 순유출은 중부권(721명)
 - 수도권 순유입은 60대(2,832명), 50대(2,695명), 40대(1,633명) 순
 - 순유출은 20대(3,013명)로 나타남
 - 중부권은 20대(452명), 30대(183명), 10대(144명) 순으로 순유출
 - 영남권 순유입은 20대(640명), 30대(250명), 50대(205명) 순

[표 8] '22년 기준 권역·연령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총 계	7,494	769	-100	-2,672	1,325	1,609	2,941	2,996	626
수도권	6,720	628	45	-3,013	1,217	1,633	2,695	2,832	683
중부권	-721	5	-144	-452	-183	33	41	28	-49
호남·제주권	239	11	50	153	41	-31	-	-12	27
영남권	1,256	125	-51	640	250	-26	205	148	-35

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II. 강원 인구이동 사유 분석

1. 전입 및 전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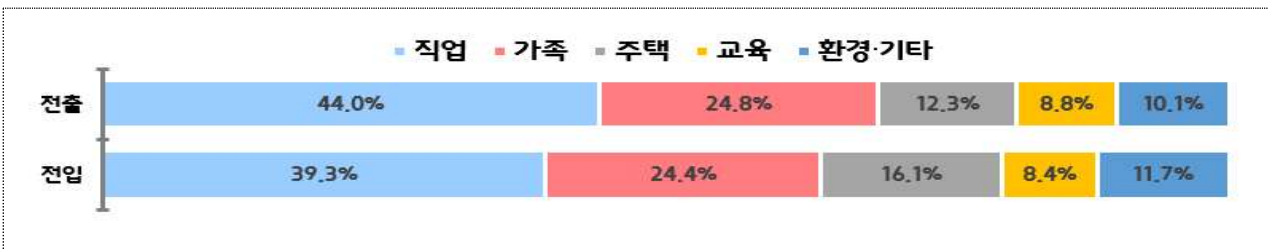
- '22년 전입사유는 직업(39.3%), 가족(24.4%), 주택(16.1%), 교육(8.4%) 순
- '22년 전출사유는 직업(44.0%), 가족(24.8%), 주택(12.3%), 교육(8.8%) 순

[표 9] '22년 기준 시도 간 이동 사유 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입	75,874 (100.0)	29,826 (39.3)	18,505 (24.4)	12,246 (16.1)	6,404 (8.4)	2,168 (2.9)	4,054 (5.3)	2,671 (3.5)
전출	68,380 (100.0)	30,078 (44.0)	16,943 (24.8)	8,397 (12.3)	6,039 (8.8)	1,933 (2.8)	710 (1.0)	4,280 (6.3)
순이동	7,494	-252	1,562	3,849	365	235	3,344	-1,609

<그림 4> '22년 기준 시도 간 이동 사유 구성비



2. 사유별 순이동자수

- (순유입) '22년 순유입 사유는 주택(3,849명), 자연환경(3,344명) 순
 - 강원으로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서울, 경기)에서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임
- (순유출) '22년 순유출 사유는 직업(252명), 기타(1,609명) 순
 - 강원에서 주된 순유출 사유는 직업(서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으로 나타남

[표 10] '22년 기준 사유별 순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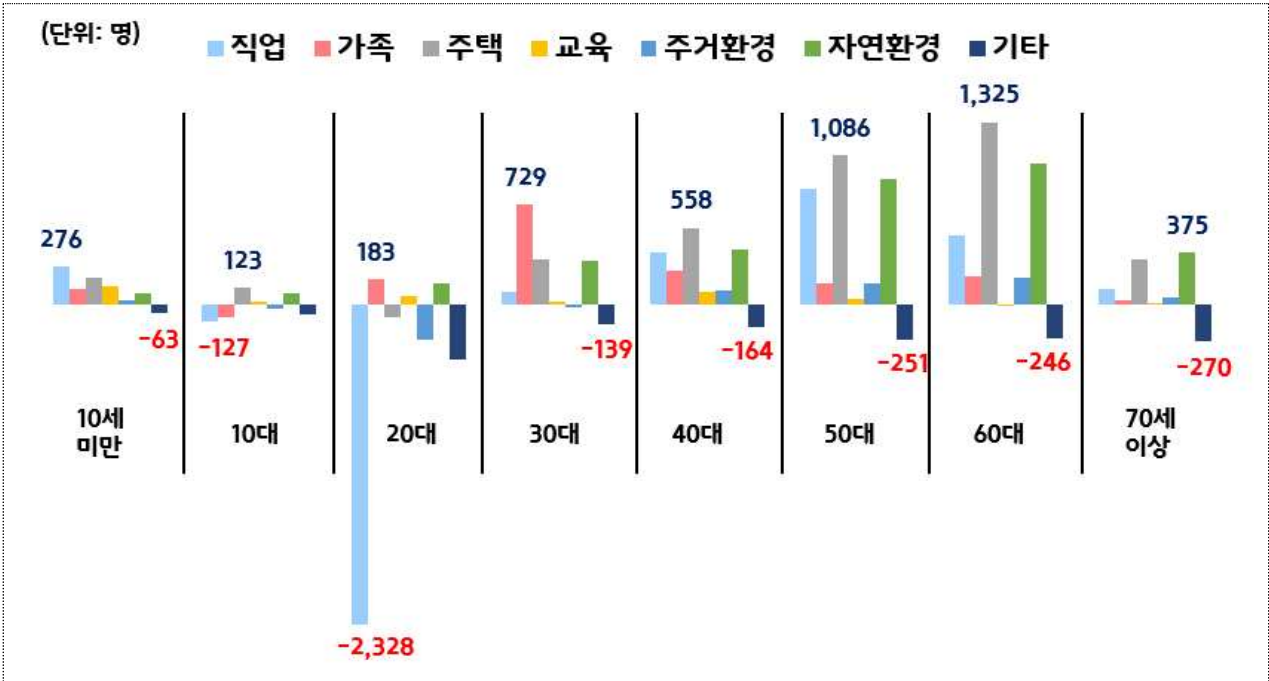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 체	7,494	-252	1,562	3,849	365	235	3,344	-1,609
서울	1,010	-1,654	1,221	1,234	-571	-17	1,232	-435
부산	254	323	3	-8	-37	-23	41	-45
대구	83	184	16	10	-115	-4	26	-34
인천	840	225	4	212	171	2	292	-66
광주	166	182	-4	2	3	-10	9	-16
대전	-286	-195	36	32	-135	-15	43	-52
울산	209	117	42	39	14	-1	27	-29
세종	-156	-92	-25	-37	15	-13	16	-20
경기	4,870	89	156	2,208	1,158	202	1,547	-490
충북	-1	-150	53	160	-99	78	63	-106
충남	-278	-201	9	-80	-23	8	48	-39
전북	69	119	-26	-8	23	-2	9	-46
전남	5	64	-48	11	25	9	-9	-47
경북	265	259	134	66	-113	17	19	-117
경남	445	497	-38	-18	39	-7	18	-46
제주	-1	-19	29	26	10	11	-37	-21

3. 사유 및 연령대별 순이동자수

- 순유입이 발생한 연령의 주된 순유입 사유
 - 40대부터 60대까지는 주택으로 나타남
- 순유출이 발생한 연령대의 주된 순유출 사유
 - 10대부터 20대까지는 직업이 주된 순유출 사유로 나타남
 - 특히 20대 연령을 세분화하면 20~24세의 주된 사유가 직업, 가족임

<그림 5> '22년 기준 사유·연령대 별 순이동 현황



[표 11] '22년 기준 사유·연령대 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10세 미만	769	276	113	194	133	35	81	-63
10대	-100	-127	-91	123	18	-27	80	-76
20대	-2,672	-2,328	183	-89	63	-257	156	-400
20~24세	-2,125	-1,388	-295	-142	35	-137	53	-251
25~29세	-547	-940	478	53	28	-120	103	-149
30대	1,325	89	729	324	23	-18	317	-139
40대	1,609	383	242	558	91	102	397	-164
50대	2,941	844	153	1,086	40	153	916	-251
60대	2,996	500	202	1,325	-7	200	1,022	-246
70세 이상	626	111	31	328	4	47	375	-270

※ 이동 사유는 세대의 주된 이동 사유를 모든 세대에 적용하였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

III. 강원 인구 순이동요인 분석

'22년 강원 인구 주요 순이동 사유인 「주택과 취업」 관련 요인 분석

1. 강원 인구 순유입요인

전국 및 수도권과 주택요인 비교

가. 주택보급률 현황

- (주택보급률) '21년 기준 강원의 주택보급률(110.0%)은 전국(102.2%)과 수도권(96.8%) 대비 각각 7.8%p, 13.2%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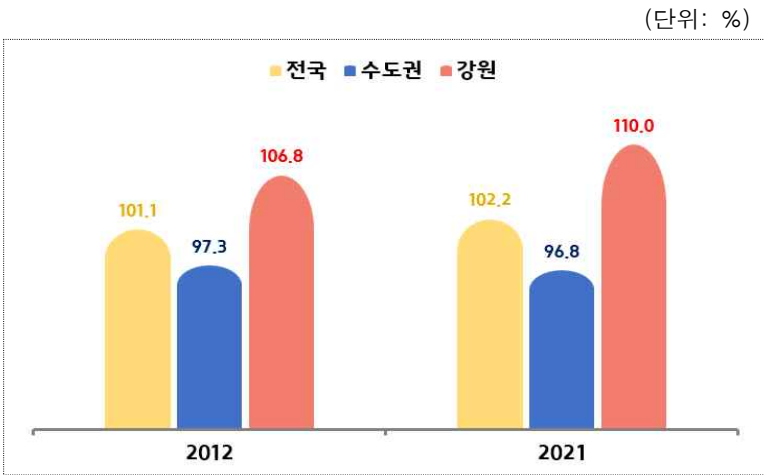
[표 12] 주택 보급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21
전국	101.1	102.2
수도권	97.3	96.8
서울	94.8	94.2
인천	102.7	97.5
경기	98.3	98.6
강원	106.8	110.0
(전국 대비)	(5.7%p)	(7.8%p)
(수도권 대비)	(9.5%p)	(13.2%p)

출처: 국토교통부

<그림 6> 주택 보급률 현황



나. 개별공시지가 현황

- (공시지가) '22년 기준 강원의 개별지 평균가격(9,780원)은 전국(74,227원)과 수도권(395,999원) 대비 각각 13.2%, 2.5% 수준
- 강원과 전국 및 수도권의 공시지가 격차는 각각 64,447원, 386,21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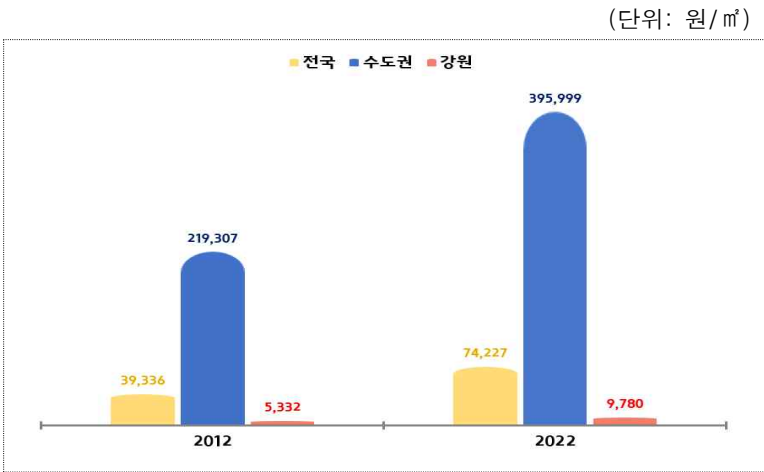
[표 13] 개별지 평균가격

(단위: 원/㎡)

구 분	2012	2022
전국	39,336	74,227
수도권	219,307	395,999
서울	1,996,291	3,827,795
인천	221,470	355,611
경기	112,243	193,181
강원	5,332	9,780
(전국 대비)	(13.6%)	(13.2%)
(수도권 대비)	(0.7%)	(2.5%)

출처: 한국부동산원

<그림 7> 개별지 평균가격



2. 강원 인구 순유출요인

전국 및 수도권과 취업요인 비교

가.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사업체) '21년 강원인구천명당 사업체수는 전국, 수도권보다 각각 12.2개, 15.1개 많음
 - 전체 사업체에서 본사 비중(1.0%)은 전국(1.4%), 수도권(1.7%)보다 각각 0.4%p, 0.7%p 낮음
- (종사자수) '21년 강원인구천명당 종사자수(466.5명)는 전국(485.7명), 수도권(504.0명)보다 각각 19.2명, 37.5명 적음
 - 전체 종사자에서 본사 비중(7.7%)은 전국(12.9%), 수도권(15.9%)보다 각각 5.2%p, 8.2%p 낮음

[표 14] '21년 기준 사업체 및 본사·본점 현황

(단위: 천개, 천명, 개, 명, %)

구 분		전체 사업체		본사	
		총계(a)	인구천명당	총계(b)	본사 비중(b/a)
사업체수	전국	6,080	118.4	85	1.4
	수도권	2,978	115.5	50	1.7
	강원	200	130.6	2	1.0
종사자수	전국	24,932	485.7	3,209	12.9
	수도권	12,989	504.0	2,070	15.9
	강원	714	466.5	55	7.7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나. 고용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22년 순유출이 큰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2%로 전국(64.5%), 수도권(68.7%)보다 낮음
 - '22년 수도권 대비 9.5%p 낮으며, 10년 사이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짐

[표 15] 20대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22
전국	62.8	64.5
수도권	65.3	68.7
서울	64.5	67.6
인천	67.4	71.1
경기	65.6	69.2
강원	57.8	59.2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20대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단위: %)



- (20대 고용률) '22년 순유출이 가장 큰 20대의 고용률(54.7%)은 전국(60.4%), 수도권(64.3%) 대비 각각 5.7%p, 9.6%p 낮음
- '12년 대비 강원 20대 고용률은 0.5%p 증가했지만,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2.2%p, 4.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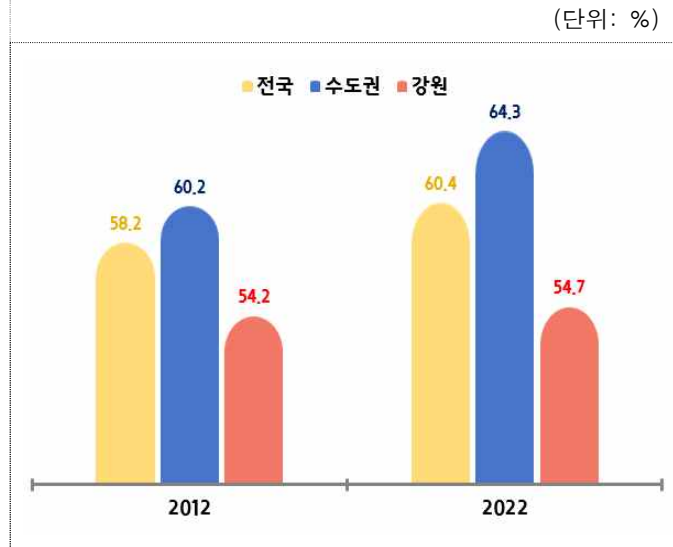
[표 16] 20대 고용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22
전국	58.2	60.4
수도권	60.2	64.3
서울	59.1	63.0
인천	60.8	66.5
경기	61.1	64.9
강원	54.2	54.7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 20대 고용률 현황



- (20대 실업률) '12년 수도권보다 1.6%p 낮았지만, '22년 수도권보다 1.3%p 높음
- 수도권·강원의 실업률은 '12년 대비 각각 1.5%p 감소, 1.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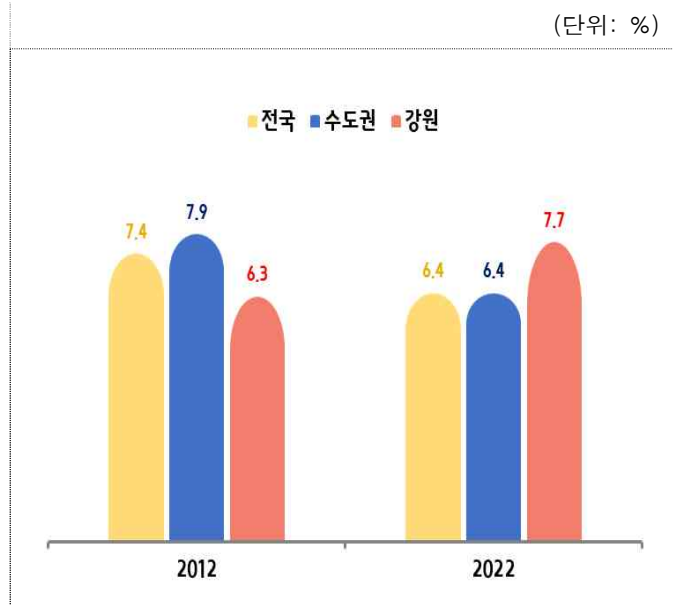
[표 17] 20대 실업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22
전국	7.4	6.4
수도권	7.9	6.4
서울	8.4	6.8
인천	10.0	6.3
경기	6.9	6.0
강원	6.3	7.7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0> 20대 실업률 현황



다. 직업선택요인 및 근로소득

- (직업선택요인) '21년 강원도의 직업선택요인은 수입(36.9%), 안정성(28.5%) 순임
- 전국(38.7%), 수도권(39.0%), 강원(36.9%) 모두 수입이 가장 중요

[표 18] '21년 기준 직업선택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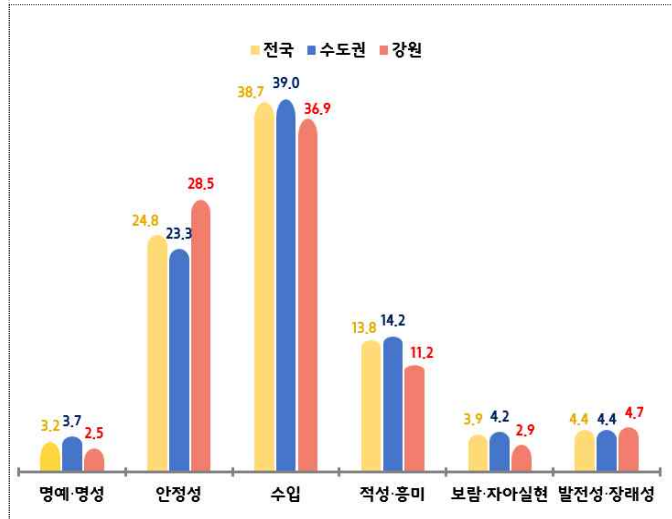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전국	수도권	강원
명예·명성	3.2	3.7	2.5
안정성	24.8	23.3	28.5
수입	38.7	39.0	36.9
적성·흥미	13.8	14.2	11.2
보람·자아실현	3.9	4.2	2.9
발전성·장래성	4.4	4.4	4.7

출처: 사회조사

<그림 11> '21년 기준 직업선택요인

(단위: %)



- (근로소득) '21년 기준 강원도의 근로소득(3,080만원)은 전국(4,125만원)과 수도권(4,749만원) 대비 각각 74.7%, 64.9% 수준
- 강원과 전국 및 수도권의 근로소득 격차는 각각 1,045만원, 1,669만원

[표 19] 근로소득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2012	2021
전국	2,642	4,125
수도권	3,075	4,749
서울	3,183	4,852
인천	2,545	4,207
경기	3,107	4,790
강원	1,827	3,080
(전국 대비)	(69.1%)	(74.7%)
(수도권 대비)	(59.4%)	(64.9%)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2> 근로소득 현황

(단위: 만원)

